

승오스님의

### 경전읽기

#### 유마경 ③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는 보수적인 색채가 농후하던 교단(敎壇)에 진보적인 새바람을 일으킨 주역이었다. 당시 교단은 '자미득도선도타'(自未得度先度他·자신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먼저 타인을 교화한다)의 이념을 망각했으며, 이러한 교단에 대해 민중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새바람의 내용은 불국토설(佛國土設)을 발현(發現)하면서 보살행과 재가불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부파불교가 자아중심적 교리에 치중해 있음을 비판하였음은 물론 대사회적·인간적인 측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상을 전개한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폭탄선언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이 경(經)의 '축루품(藥乳品)'에서 유마경이 '불

것'한 것 같으면서도 통하는 지묘(至妙·지극히 오묘한 것)한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을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들어가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화의 본질을 뿌리 속 깊이까지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 근 본적인 파악이 없이 지랄적 존재의 현상만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생의 참모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유마거사는 보살도를 수행하는 이로써 대자와 대비의 마음으로 일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등 고통받는 모든 부류의 인간에게 근원적인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보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유마거사는 세간이나 출세간의 구별이 없이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구도

### '사회와 함께' 생활불교 전개

#### 차별없는 깨달음의 세계 체득 강조

가사의 해탈법문(不可思議 解脫法門)을 설하는 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마경〉은 단순히 교리를 전개하는 경전이라기보다는 불가사리한 종교적 체험에서 얻어진 마음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경전임을 알 수 있다.

옛날부터 수많은 주석자들이 이 경의 핵심은 바로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에 있다고 했는데, 불이(不二)의 사상은 이 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근본 바탕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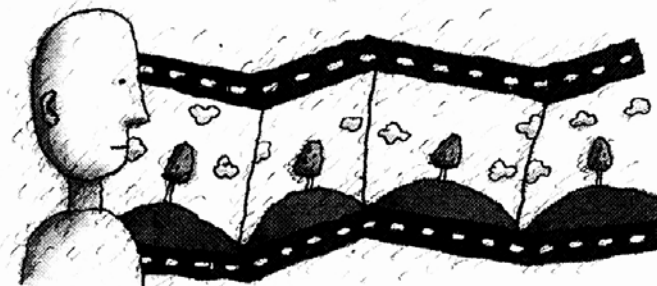
중국 불교사상의 개척자로 불리는 승조 스님은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정경(一도 淨淨)을 말하는 것이요, 법은 진극가계(眞極可軌)이며, 문(門)은 지묘허통(至妙虛通)이니 불이법문에 입(入)한다는 것은 요사리(了悟)하는 것이다." '입불이법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참'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궤(軌·길)가 되는 청정한 하나의 도(道), 그것은 허(虛·빈

자의 모습이었으며, 출세간의 수행자들에게는 불의 세계 위에서 모두가 하나의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강조한 설 교였다고.

유마거사는 차별상과 개념의 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대한 참목으로 불이(不二)의 뜻을 대변하였다. 잘못된 개념을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수행자의 잘못을 타파하는데 일침을 가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법(法)의 실상(實相)에는 부처와 중생·삼과 죽을·옳고 그름이라는 등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실상을 온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 〈유마경〉의 가르침인 것이며, 언설을 떠나 실제의 수행만이 부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유마거사는 말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실천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불이법문(不二法門)이 곧 사물을 대하는 마음의 경지요, 삼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 유마거사의 정신이 길이 빛을 받게 될 것이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문병성

## 감각은 가상의 현실

### 불교와 과학 <10>

#### 1/16초의 세상살이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 영화 필름을 빨리 돌려서 환상의 두 시간을 마치 실제적인 현실인양 영화를 본다. 그런데 영화 필름은 불연속적인 컷들의 조합일 뿐 연속적인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인 영상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의 시신경은 잔상효과라는 특별한 신경구조로 되어 있어서 불연속적인 컷들을 마치 연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신경의 잔상효과란 방금 전에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어느 일정 시간 동안만큼 지난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신경구조를 말한다. 그 잔상시간은 1/16 초이다. 그러나 영화 필름을 그 잔상 시간 보다 더 빨리 돌리면 불연속의 컷들을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현재 필름을 돌리는 속도는 1/16 초보다 빠른 1/24 초로 돌린다. 다시 말해서 1 초 동안 24 컷을 돌린다는 말이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상적임을 알 수 있는 단편의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상을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감각의 가상성 속에서 삶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한 현실의 가상성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인식 구조를 밝힌 것이 바로 유식론(唯識論)이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감각 혹은 감각을 느끼는 사람의 구조는 단순히 외부의 감각대상과 그것을 감각하는 사람의 감각신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감각을 얻어내기 위하여 사람은 그 대상만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전체 세계를 같이 감각한다. 내가 저 소나무를 보았다는 것은 소나무만을 단독으로

#### 과학 잔상효과로 영화 움직임이듯 보여

#### 불교 空으로 보면 세계는 깨달음 천지

보고 있는 것이 소나무임을 확인한다. 이를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하고 아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전에 본 것과 비교하여 정말 맞는 소나무인지 아닌지를 순간에 판단한다. 그래서 감각은 순간적이지만 대상의 세계 모두와 나의 인식의 전체 역사를 동원하여 비로소 소나무임을 알게 된다. 결국 소나무에 대한 인식은 나의 전체 역사와 연관하며, 나의 전체 역사란 바로 나 아닌 타인 모두의 역사와 연관할 때 비로소 인식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소나무 하나를 보고 인식하는 일조차도 우주를 관통하는 모든 인식의 눈이 동원되는 것이다.

그런 총체적 우주의 눈이 있을 때만이 나와 대상의 만남이 가능해진 다. 그런데 그런 만남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식의 세계는 많은 인식의 세계 중에서 하나 일뿐이다.

어쩌면 지금 이 인식의 세계는 우주적 잔상효과에 의한 1/16 초라는 가상의 세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실제 조각 필름으로 구성된 영화의 공간이 연속적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실 같은 가상이 부질없는 것이어서 실제의 세계는 더욱이 실재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 어떤 이들은 불교가 관념적이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부질없는 가상이 없다면 실재 진여 세계의 참다움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을 각(覺)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아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어야만 진짜 아는 것이라고 자주 들으고 있다. 그것처럼 감각도 일종의 각(覺)이다. 부질없는 세계 속에서 감각을 잘 하는 일은 진짜 진여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을 시작하는 일과 엮여 있다.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을 이 세계가 부질없고 가상 투성

이 세계라 할지라도 그 부질없음과 가상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의 몸으로 느끼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이 세계가 허망하다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비판적이라고 혹은 관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적인 유(有)의 물질 세계에서 볼 때만 그러하다. 물질이 아닌 공(空)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계는 깨달음 천지의 세계이다. 부질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부질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참 좋은 세계이다.

만약 사람에게 시각의 잔상효과가 없었다면 연속적인 영화 필름을 만드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1/16 초의 세상살이라도 다음의 세계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 최중덕/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 "승려는 반정부인사" 투옥 등 종교활동 막아

### 지구촌 불교 / 베트남 불교 탄압

11월 5일, 베트남 방문을 열을 앞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베트남 불교사원연합회의 지도인 틱 쿠앙 도(Thich Quang Do, 73) 스님이 보낸 이 편지에는 "베트남의 종교 자유와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로이터통신(11월 9일)의 보도에 따르면, 틱 쿠앙 도 스님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베트남사원연합회나 베트남 인권위원회 등의 단체에서 사전 입수한 베트남 방문 일정에 적잖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정에는 클린턴 대통령은 호치민 시(市)의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해 기독교계 지도자만을 만날 뿐, 반정부 인사로 분류돼 가택연금 또는 구금되어 있는 베트남 불교계 지도자들은 일체 만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틱 쿠앙 도 스님은 편지의 말미에서 "베트남 불교는 이곳 사람들의 정신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 자체"라며 "부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줄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베트남 불교 인구는 전체 인구(7천3백 만 명)의 55%인 4천여 만 명.

이 편지는 두 가지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베트남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군의 사절을 받고 있다.

#### 호치민 감옥 사상범 100여명 대부분 스님

남의 현행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불교 탄압은 베트남 종전 전후(70년대)와 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탄압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사상범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 감시단(Human Right Watch)이 9월 조사한 바로는, 호치민 감옥에는 100여 명의 사상범이 있으며, 대부분 스님이라는 것이다. 틱 쿠앙 도 스님 역시 20여 년 간 옥살이와 가택연금을 당한 전력이 있다.

현행 베트남 헌법은 1980년에 개정됐다. 베트남 전쟁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베트남 불교는 일체의 종교 활동을 금지당하는 등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과거 많은 베트남 스님들이 '보트 피플'이 되어 외국으로 탈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함양하며 종교를 가질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베트남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대신 17일 하노이에서 학생들에게 "과거는 바랄 수 없다. 다만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뿐"이라며 신자유주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코카콜라나 나이키와 같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

틱 쿠앙 도 스님의 편지는 베트남 종전 33년이 흐른 뒤 미국 대통령의 첫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보내졌다는 점에서 로이터 통신 등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밀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버린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과거 반전 운동가였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10여 일간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베트남 스님과 세계 인권단체의 노력도 아무런 울림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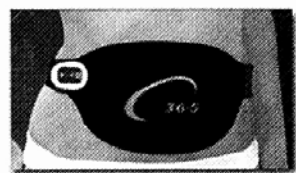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 108 나한단주



● 신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일주 한 알에 6명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포옥열 건강벨트



● 내용물-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적 충전기/빛데리(후대용 구입시)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삼보죽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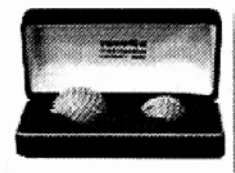
● 황토기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며, 인건문화제이신 전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 투명꽃 5인다기



● 우아한 빛깔과 곡선이 느껴지는 투명다기 세트입니다. 차일을 우려내는 다권, 향수를 식히는 사발, 속주, 차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 150,000원

#### 수암 만다라 옥침



● 암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 연꽃 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남성용,여성용 각각 : 119,000원

● 불자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본뜬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시계

#### 참선 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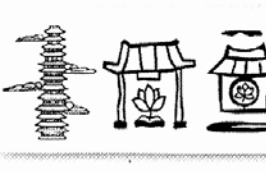
● 황토로 만든 수형자의 그릇  
가격 : 4합 60,000원(무게 27kg) 2합 30,000원(무게 11kg)

####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자린향 + 천연목향 + 향꽃이  
가격 50,000원

#### 기도포/다포



● 기도포 84cm x 39cm / 가격: 1,600원  
다 포 50cm x 32cm / 가격: 800원  
· 재질 : 면  
\* 다량구해서 단체명 인쇄

#### 참선 명상방석



● 일 반 30,000원 실용신안 1998-02509  
숭기반 35,000원 의장등록 제 14387 호  
황토반 35,000원 인쇄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Tel : 732-1522-732-1522